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2~6/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 크신 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3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8	선원일기:화두하나로 죽고 사는 선사들의 수행이야기	지범 지음	사유수
4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9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 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10	윤회(대원불교학술총서15) 불교의 마음업우주에 대한 길잡이	로저 잭슨	운주사

책세상

승려 과거시험 '승과' 어떻게 운영됐나



조선의 승과 연구

정각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7000원

조선시대 승과 양상 전반 고찰

시기별 주관자, 입격자들 정리

묻혀있던 불교사 발굴 의미 커



서울 강남 코엑스에 있는 승과평 표지석. 스님들의 과거시험이었던 승과는 1564년 폐지되며 잊혀진 역사가 됐다. 사진=비짓 강남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과(僧科)'를 굳이 설명하자면 '스님들의 과거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나라에서는 특정 승려를 선출, 그들에게 승직(僧職)을 부여했는데,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 조선에 이른다. 다만 조선시대 승과는 1564년 폐지되면서, 명종 대 승과가 진행되었던 서울 봉은사의 승과평(僧科坪)은 현재 코엑스 구석의 표석으로만 남았고 남양주 봉선사의 승과원(僧科院)은 채마밭으로 변해버렸다.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고양 원각사 주지)이 저술한 〈조선의 승과 연구〉는 역사 속에 묻힌 승과, 특히 조선시대 승과의 양상과 전개에 관해 고찰한다. 또한 옛 문헌을 통하여 조선의 각 시기별 승과 주관자(主管者)와 입격자(入格者)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전기 불교사 연구를 위한 하나의 주요 자료를 정리하려는 목적이다.

저자는 먼저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까지 존재한 승관제(僧官制)에 대해 설명한다. 역사적 전통을 고찰함에 있어 그 시작점을 살피는 일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사찰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기관인 승록사(僧錄司)의 구성과 양태,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조선 초에 행해진 종파(宗派)의 통폐합과 승록사의 혁파 과정을 서술한다. 특히 혁파된 승록사를 대신한 양종도회소(兩宗都會所)의 구성과 역할을 살피는데, 그 역할 중에서 승니(僧尼)의 시재행(試才行)과 도첩 발급, 선시(選試, 승과의 별칭)의 주관, 주지(住持)의 작첩(爵牒) 발급 등의 역할에 주목한다.

3장에서는 조선 초부터 세조 연간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선시의 형식과 이를 통해 수여된 품계(品階)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선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대목이 주목된다.

저자는 시기별로 선시가 혁파되고, 다시금 복원되며, 나아가 기형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여기에는 왕족의 친불적 성향이나 조선시대의 커다란 사건 중 하나인 임진왜란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각 시기에 따른 승과의 주관자와 입격자를 파악한다. 조선시대에 승과에 입격한 자들은 당대 문인들과 견줄 수 있던 자들로, 조선시대 불교계의 위상을 대변해 주었던 자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관련 사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조선시대의 승과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고, 승과 입격자들의 현황과 그 활동 또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저자는 조선왕조실록과 문집, 불상 조상기(造成記)와 불화 화기(畵記), 조선시대 간행 불서(佛書)의 간행질(刊行秩)을 통해 이들 각각의 명단을 파악한다. 특히 불서의 간행질에 수록된 다수의 입격자 명단은 조선 전기 불교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승과는 1564년 이래 폐지되면서, 잊혀진 역사가 됐다. 하지만 조계종에서는 승과 전통을 되살려 2001년 이래 승가고시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5급에서 1급까지의 승과고시가 정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천 무비 대종사는 이 책을 "승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종단의 역사적 전통 가운데 하나를 되살린 중요한 업적"이라고 상찬했다.

역사의 한켠에 묻힌 승과 전통을 우리 불교사의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로 다시금 소환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미덕이다.

▲저자 **정각 스님**은

가톨릭대학 신학과 졸업 후 송광사에 출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였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및 미술사학과를 수료,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무비 스님을 법사로 강맥(講脈)을 전수하였으며, 조계종 교수아사리에 위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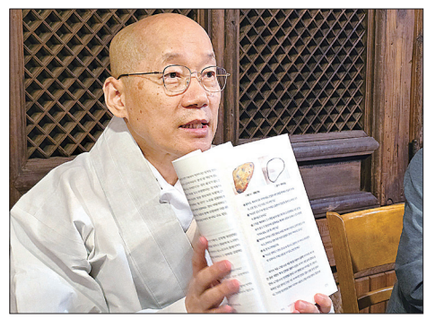
동국대 · 중앙대 객원교수 및 불교신문 논설위원, 경북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한국 종교인평화회의 종교간대화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교수 및 이화여대 객원교수, 고양 원각사 주지로 있다. 〈불교 부적의 연구〉 등 17권의 책과 '천수다라니에 대한 인도신화학적 고찰' 등 50편의 논문을 저술했다.

제4세대 심리상담방법 '영상관법' 면면 알린다

인경 스님 '명상불교의 정수, 영상관법' 출판기념회

6월29일 韓불교역사문화관서

'영상관법과 마음치유' 주제로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이 6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상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상관법'이라는 새로운 상담방법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와 명상상담평생교육원은 6월 2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영상관법과 마음치유'이란 주제로 인경 스님 출판기념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이 저술한 〈명상불교의 정수, 영상관법〉 발간에 따른 것이다.

인경 스님의 '영상관법과 마음치유 이론과 실제 개요' 특별강연으로 시작되는 토론회에서는 '영상관법의 이해'에 대해 동국대 교수 정도 스님, 이필원 동국대 교수,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논평을 한다. '영상관법의 심리학적 접근'에 대해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향산 스님·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김창중 전 동양대 교수가 논평을, '영상관법 사용 사례연구'에 대해서는 권주희 명상상담평생교육원 교수·안세윤 건양대 교수·이영순 마인드힐링 명상심리상담센터 원장이 각각 논평한다. 특별강연과 논평이 끝난 후에는 종합평가 및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6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경 스님은 '영상관법'에 대해 "우울과 분노는 각각의 감정을 발생시키는 씨앗이 있다. 이런 씨앗이 우리에게는 이미지로 저장된다"면서 "저장된 이미지를 떠올려서 관찰하고 이를 통찰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정화하는 명상이 '영상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 불교의 특징이 명상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정수는 영상관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현대인이 겪는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전략을 제공해준다.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과 우울, 공황, 스트레스 등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을 영상관법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경 스님이 출간하는 〈명상불교의 정수, 영상관법〉에 대해 손강숙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중앙승가대 교수)은 "제4세대 상담방법으로서의 영상관법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를 성장시킨다. 새로운 방식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는 이 책은 명상상담에 대한 이론과 함께 다양한 실제를 소개하고 있다"고 추천했다.

또한,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영상관법은 명상상담의 핵심 기제로써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한다"면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물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가 마음을 반조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살피는 보살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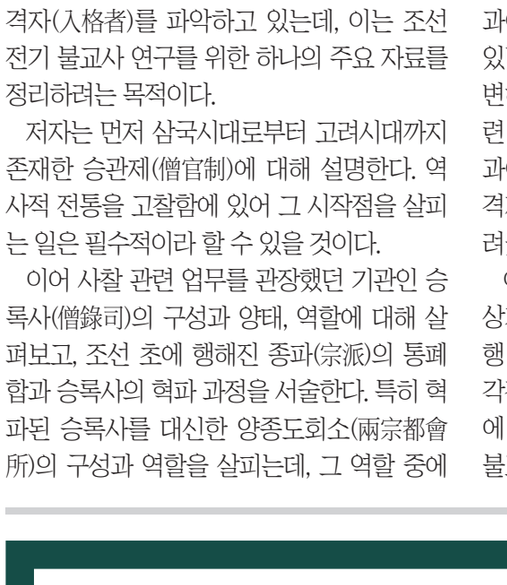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역시 "영상관법과 현대 심리학의 명상 기반 인지행동치료는 공통으로 불교 명상법을 치유의 핵심적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가 초기불교의 명상에 기반한 것이라면, 영상관법은 대승 유식불교의 수행이론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에 따라 개발된 심리치료법"이라고 상찬했다.

신중일 기자

"전 세계에 마음챙김 열풍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책!"

★★★★★

30주년 기념 에디션 출간!



출간 이래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
'마음챙김 명상의 대부' 존 카밧진의 역작!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죽을 만큼 명상이 하고 싶어진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마음챙김 명상 교과서



발간 이후 30년간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명저

❖

전 세계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30th Anniversary Edition
Wherever You Go, There You Are

존 카밧진의
왜 마음챙김 명상인가?

당신이 어디를 가든 거기에 당신이 있다

존 카밧진 지음 | 엄성수 옮김 | 364쪽 | 19,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